

광주 시내버스 CCTV 주정차단속 효용성 논란

시, "예방효과 있다" 노선·차량 확대 계획

시의회 "고비용 대비 효율성 떨어져" 반대

광주시가 불법주정차 해소에 상당한 성과를 보였던 '시내버스 CCTV 이용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는 것과 관련,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성과가 상당하다'며 적극 홍보해온 광주시가 단속 장비를 늘릴 계획이면서도 단속 시간대를 축소하려 하는 것은 민원에 밀린 '후회 행정'이라는 지적

이다. 18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CCTV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지난 2011년 7~8월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해 현재 순환 01번·진월 07번·철단 09번·봉선 37번 등 4개 노선 시내버스 10대가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단속 노선을 3개 늘리고 차량 역시 8대를 추가하며, 이와

는 별개로 단속시간은 현행 버스 운행 전시간에서 출·퇴근 시간대로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의회를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되레 뒷감잡힐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단속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단속 노선과 차량을 늘리면서도 단속 시간이 줄어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보현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등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민원도 민원이지만, 시내버스 주정차단속은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단속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교통 혼잡이 심한 간선도로·교차로 등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확대·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단속 차량 1대당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일부에서는 또 "단속이 실시되면서 보도 위 주차나 트럭의 개방, 대각선 주차 등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한 편법들이 등장해 도로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역효과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단속 차량을 운영하는 시내버스 기사에게서 이 같은 반대 의견은 높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이 축소될 경

우 지금 상태론 효과가 반감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버스 기사는 "불법주정차는 하루종일 단속해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며 "오히려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CCTV 단속은 위반 차량 적발과 함께 '이 구간을 단속한다'는 예방차원의 효과가 크다"면서 "노선을 확대하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속 시간을 축소하는 것과 관련 "단속에 항의하는 민원 때문에 단속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5분 / 해질 18시 19분 / 달돋이 12시 29분 / 달질 02시 29분

반짝추위 흐리다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다.

지역	하림	최저
광주	흐림	-2/4
목포	흐림	-1/3
여수	흐림	2/6
나주	흐림	-3/4
완도	흐림	0/6
구례	흐림	-4/5
강진	흐림	-1/5
해남	흐림	-1/5
장흥	흐림	-1/6
순천	흐림	-4/5
영광	흐림	-4/2
진도	흐림	0/3
전주	구름맑음	-3/3
군산	구름맑음	-3/3
남원	구름맑음	-5/3
속산도	흐림	1/3

〈오전〉 바다: 동풍 파고 2.0~3.0m /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동 2.0~4.0m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동 1.5~2.5m / 먼바다: 북서~북동 2.0~3.0m

〈오후〉 바다: 동풍 파고 1.5~2.5m /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 먼바다: 북서~북 1.5~2.5m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수)	21(목)	22(금)	24(토)	25(일)	26(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6/4	-4/6	-3/7	-3/6	-3/8	-2/8

'리베이트 싹발제' 시행

적발 의사 4000명 넘어

리베이트를 준 쪽뿐만 아니라 받은 쪽도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 시행 이후 당국에 적발된 의사가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대한의사회에 따르면 노환규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쌍벌제가 발효된 상태에서 회원들의 피해가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쌍벌제는 의약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물품을 주는 쪽뿐만 아니라 받은 쪽도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작년 7월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의사 적발 인원 3069명에 비해 6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것이다.



교복 나눔 '일석이조'

신학기를 앞두고 18일 광주 설원여고 체육관에서 '교복 나눔행사'가 열린 가운데 입학생들이 교복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옴퍹 파인 도로 곡예운전 일쑤

광주시, '포트 홀' 제거 나선다

시, 매일 100곳씩 복구 작업

광주시가 매년 해빙기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며 '도로 위 지뢰'로도 불리는 '포트 홀(pot hole)' 제거에 나선다.

광주시는 18일 "겨울철 한파와 열화갈음 살포 등으로 발생한 포트홀(도로 위 구멍)을 매일 100곳씩 응급 복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광주 도심 도로에 2400여개의 포트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오는 3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 있다.

매년 기온이 상승하는 해빙기가 되면 겨울철 얼었던 노면이 녹으면서 열화갈음 등으로 약해진 도로가 파손되고 냄비모양으로 옴퍹 파인 포트홀이 도로 곳곳에 발생, 차량의 타이어 파손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

인이 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시민신고 등에 의해 맹질식 복구에 머물러 왔으나, 올해부터는 자체적인 정밀조사를 거쳐 체계적인 포트홀 복구에 나서고 있다.

시는 우선 2월 말까지는 복구가 시급한 도로를 대상으로 응급복구를 하고, 3월부터는 일부 상층 포트홀 발생 구간 재포장 공사 등 전면보수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정성욱 도로관리담당장은 "포트홀을 비롯한 균형·변형된 도로 등 시민의 교통안전에 위협하는 도로 및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동구 주택재개발 사업 활기

학동 3구역 그린벨트 해제 추진...환경개선도 '속도'

도심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광주시 동구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18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학동3구역 등 구내 재개발부지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진행중이며 택지조성에 따른 2~3단계 구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건설사공모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월남동 도시개발과 관련 오는 5월 경 654세대 규모의 호반리젠시빌 임대아파트 분양에 착

수, 총 27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1410세대가 들어설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도 앞서 관리처분계획 회의에서 조합원들의 찬성을 얻어 올해 안에 보상 및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명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푸른길공원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소공원, 주차장, 공공기반시설, 야외공연시설 등을 조성해 낙후된 주거지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소득 낮으면 4년제 대학 진학을 낮고

수능 성적 우수자는 취업후 임금 높아

저소득층 자녀일수록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좋으면 나중에 취업률은 낮아지지만, 취업 후 임금은 높았다. 대학생의 영여 공부와 여학연수는 취업 시 임금을 높이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전북대 교육학과의 반상진 교수와 박사과정 수료생 조영재씨는 19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제8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 '소득계층별 자녀의 대학 진학 격차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2004~2006년 당시 고교생 4000명과 2007~2009년 당시 중학생 3500명을 대상으로 남성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대학진학을 분석했다.

월소득 400만원이 넘는 계층의 자녀는 68.7%가 4년제 대학에 진학했고 전문대 진학률은 15.7%였다.

반면 월소득 200만~250만원 계층 자녀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56.0%인 반면 전문대 진학 비율이 35.3%였다.

건국대 최필선·경희대 민인식 교수팀은 수능성적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에서 학생의 수능 백분위 점수가 80%를 넘으면 취업률이 뚜렷하게 감소하기 시작해 취업률이 74%까지 낮아진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수능점수가 좋은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취직을 꺼리거나 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택해 취업에 걸리는 기간이 더 길러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추측했다. 월 급여는 수능성적과 비례해 올랐다.

/연합뉴스

황상제주 겨울시즌 BIG HIT! 제주여행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광주공항출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1인 ₩229,000~

완도항출발 (블루리레) 완도항고속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1인 ₩169,000~

목포항출발 (씨스타크루즈) 씨스타크루즈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1인 ₩155,000~

제주도 골프투어 -항공/선박골프패키지 1박2일

[명품2회] 테디벨라+블랙스톤 ₩405,000~
 [명품2회] 테디벨라+세인트 ₩385,000~
 테디벨라+우리들CC ₩385,000~
 [명품2회] 라온+블랙스톤 ₩413,000~

여행사 파트너 모집 **광주/전남 T.062-675-0064**

담당: 공지혜 대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번지 금호종합금융 4층 | 제주 T.1600-4800 서울 T.02-6404-4708 부산 T.051-469-7030 대구 T.053-425-0747

환상제주 여행문의

하이센스여행사 350-6222
 이우여행사 374-1881
 메이투어 070-7093-0555
 한별투어 956-0045
 침탄/투어디자인 974-3050
 무등파크여행사 384-7470
 동구/다니엘여행사 227-7422
 고고투어 603-4416